

건강 칼럼

아기가 크데 유도분만 해야 되나요?

막 달이 되어 가면 "예정일이 다 되었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기다려다 가아가 너무 커서 자연분만이 힘들지는 않을까요", "태반을 보지는 않을까요", "몸이 너무 힘들데 빨리 낳으면 안 될까요?", "남편이 언제부터 출장을 가야하는데 그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아이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다 보면 아이를 빨리 안전하게 순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도분만을 한번쯤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아이를 가진 산모라면 누구나 쉽게 주변에서 아이기 들을 수 있는 것이 유도분만이다. 과연 유도분만이 그렇게 실제로 자연분만(질식분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유도분만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유도분만이란 스스로 진통이 시작하기 전에 질식분만을 위해 자궁의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당연히 유도분만은 임신을 유지하는 것보다 출산하는 것이 산모와 아기에 게 특이 될 때 시도하게 될 것이고, 질식분만이 힘든 거꾸로 있는 자세의 아기가 전치태반, 제왕절개를 했던 경우가 금기가 될 것이다.

일반적인 병원에서 유도분만을 권하는 상황으로는 양수가 새는데 진통이 없는 경우, 양수과소증, 배속에서 아기의 상태가 잘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 경우, 임신 중독증이 생긴 경우, 과숙아(42주)인 경우, 열매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인해 출산이 필요한 상황들이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병원과 집까지의 거리가 너무 먼 경우와 급속분만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도 유도분만에 대해 고려하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30분 내외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해당사항이 있지

는 않는 것 같다.

유도분만의 합병증으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제왕절개술을 빼 놓을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양수의 감염, 자궁 상처의 파열,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출혈 등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보고에 의하면 자연분만(질식분만)을 목표로 하는 유도분만은 제왕절개 수술을 높인다고 한다. 특히, 첫아기를 유도분만 하는 경우 제왕절개할 가능성이 2~3배 높은 것으로 돼 있다.

수술과 관련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충분히 가진통을 겪지 못하고 자궁경부가 딱딱한 상태이면 유도분만의 성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한다. 아기가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와 아기의 머리 방향도 중요하다. 41주가 된 초산모의 경우, 아기 머리가 골반에 진입해 있지 못하면 진입해 있는 아기보다 12배나 제왕절개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반면 아기가 3.5kg보다 작았던 경우, 자궁이 부드러워져 있는 경우 산모의 BMI가 3.0보다 낮아서 과체중이 아니었던 경우가 자연분만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모든 보고들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진통이 생긴 경우와 유도분만을 비교하지 않고 일단 기다렸던 경우와

유도분만을 비교해보면 제왕절개율은 비슷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반되는 보고들에도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여서 결론이 나는데, 현대 의학이려면 현재까지 주요 결과는 유도분만이 첫아기의 제왕절개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의 합병증으로, 자궁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도분만을 위해 양수를 터트린 경우는 당연히 양수의 감염을 증가시킨다.

자궁근종 수술이나 전에 제왕절개술을 받았던 산모들은 진통을 겪을 때 이전 상처가 벌어져 아기와 산모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유도분만을 했던 경우가 더 위험하다.

초기에 무턱대고 양수를 터트리는 병원은 드물 것이고 제왕절개 받았던 산모가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보다 실제적으로 산모에게 위험한 것은 유도분만 후의 자궁무력증이다.

출산 후 자궁이 수축해서 출혈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자궁무력증이 오면 지혈이 되지 않아 출혈이 많아지게 된다. (출산 후 출혈은 굉장히 다양으로 무시할 수 있다.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고, 산부인과에서 응급조치가 꼭

필수적이다.) 특히 유도분만을 하다가 제왕절개를 하게 됐을 때 자궁 무력증이 생기면, 자궁적출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유도분만이 흔해지면서 미국에서는 1994년 보다 2007년에 제왕절개술 후 자궁적출술이 15%나 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39주 전에 유도분만을 한 경우는 아기가 태어나서 초기에 여러 가지 질환들에 더 많이 걸렸다고 한다. 이런 이유들로 미국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일상적인 유도분만을 자제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쓰다 보니 딱딱한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적으로 산과학 교과서에 나온 최신 연구의 결과들을 자세히 풀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산모들이 당분간 내용이기도 하다. 교과서에 이런 점들만 써 놓은 이유는 그만큼 편의를 위한 유도분만을 쉽게 생각하고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제 몇 가지 보충사항을 하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냐?" 에도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과 교수들은 41주가 돼야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있고 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기가 클 때 유도분만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이 결과도 좀 아이러니하다. 오히려 작은 아기가 유도분만의 성공률이 높고, 큰 아이일수록 유도분만을 하면 수술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흡수력 기다려 스스로 진통이 생기는 경우가 최선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유도분만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반면에 구체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주저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다.



이홍중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원장

사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예고 논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예고가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의무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일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예전 그대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까닭이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측은 논쟁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누리예산 문제가 과반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도교육청이 재정 적자의 위기로 내몰린 데는 현 정부의 탓이 크다. 누리 예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벌써 오래된 옛 일이 생각난다. 중앙 정부는 갑자기 누리 예산을 지방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도교육청은 그동안 고충이 컸다. 예산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홀과구는 지방채 발행이었다.

도교육청의 적자 재정이 초미의 관심사인 이유는 도교육청이 딱 해서만이 아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보육 2차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파행으로 어린이들이 입을 상처가 걱정이다. 그래서 본보가 지난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사실을 통해서 내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코앞의 현실로 닥쳐왔다. 부채가 눈덩이인 도교육청으로서 지방채에 무한정 의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고충 속에서 죽을 맛일 것이다. 그대도 어쩔 것인가. 도교육청은 보육재정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말이지 모든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못 해먹겠다면서 또 드러놓는다면 곤란하다. 도교육청은 두 번 세 번 고민해야 한다. 협의 대상인 지자체도 세 번 네 번 고민해야 한다. 현재 입장이 딱하기는 해도 도교육청도 잘못된 게 아주 없지는 않다. 도세가 비슷한 충남과 충북 그리고 강원도의 체무 규모와 비교해 실질살이를 방만하게 했다는 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도교육청은 전 북도와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전 북도는 정부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지역 현안 어디쯤 와 있나

지역 현안이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 현안 사업들이 너무 지연되고 있기에 갖게 된 궁금증이다. 지역 발전을 약속한 사업들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전 북도의 말대로 중앙정부 탓이 크다고 해도 이대로는 곤란하다. 남의 탓만하기에는 세월이 아깝다. 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되뇌어서는 안 된다. 고장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역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전 북도 또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각오의 당사자들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단체장들이다. 지금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는 이유가 있다.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 매진해야 한다. 현재 전북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도내에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새만금과 탄소산업이 먼저 떠오르는 중에 나머지 사업들은 그저 고만고만하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지원이 미약하니 도민들은 여간 불만이 아니다.

현안 사업 추진에 계속 힘을 내야 한다. 지금 이대로는 만족을 말할 수 없다. 누군가는 괜한 욕심이라고 말하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미리 기죽을 필요는 없다.이같은 격려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전북의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 전북의 오늘은 과거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 비교하는 게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로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시군들도 분방이 필요한 작금이다. 미래를 약속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얼마나 높은 성취도를 시민과 군민에게 보여줬는지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여기 다시 말한다. 지역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의 구상이 치밀해야겠다. 그리고 행보 또한 활발해야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겠다. 물론 그 비상한

독자제언

남녀노소 불문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엄격히 대처해야

오즈음에 접어들어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취자들의 소란행위에는 술값 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술을 먹으면 그럴수 있지"라는 우리 사회의 주취자에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 인지도 모른다. 사전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후 지구대, 파출소에 찾아가 연성을 높이거나 소란을 피운다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구대, 파출소를 경찰관서는 불문 관공서(시, 군,구청, 동사무소,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만든 학교, 병원, 도서관, 시민회관등)를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연성을 높인다거나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장하면 2013년3월22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한다. 이 항목은 형소법제214조 경미범죄(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취가 확실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거부하면 현행법인 체포도 가능하게 된다. 장영길전주읍민정경찰서 서신지구대

독자제언

타인의 생명 구조 늦추는 '허위신고'

최근 익산의 한 은행에 강도침입이 의심되는 소동이 발생된 적이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365코너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장난으로 신고를 해 일어난 해프닝었고, 당시 근무 중인 나는 가슴을 쓸어내린 사건 중 하나였다. 2013년, 경찰은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허위 또는 장난전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112 허위신고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허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무심코 한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온다.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내 가족, 내 친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다. 연보배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Jeonju Daily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traditional Korean boat (Jangjuk) on a wavy sea under a full moon. The text includes the slogan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journal for humans who bring courage and hope) and a call to action: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more, a newspaper with readers). It also lists contact information: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and the newspaper name '전주매일'.